

[울산시]강동리조트 개발중단 6년 만에 올하반기 공사재개

울산의 동해안 관광인프라가 될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공사중단 6년 만인 올하반기에 재개될 예정이다. 강동관광단지의 핵심 선도시설(워터파크지구)은 오는 9월~10월쯤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울산시는 23일 롯데건설과 지난달 13일 ‘강동리조트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관광단지 조성 공사 재개를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측은 지난해말 강동유원지가 강동관광단지 사업성격이 변경되고, 현실적인 관광수요를 감안한 리조트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측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8월쯤 관할 행정기관인 울산 복구에 건축허가를 접수할 방침이다. 울산시관계자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의한 울산 강동권 관광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동리조트는 2017년 개장을 목표로 2800억여원을 들여 울산 북구 정자동 일원 10만8900여㎡에 조성된다. 객실 200개와 실내 워터파크·연수시설 등을 갖춘 숙박시설과 실외 워터파크(1만4900여㎡)가 계획돼 있고, 오토캠핑장(9800여㎡)과 판매 및 문화시설(3만1100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리조트 개발은 2007년 2월 처음 착공됐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2009년 공정 37% 상태에서 중단됐다.

<백승목 기자 smbak@kyunghyang.com>

입력 : 2015-06-23 13:25:17 | 수정 : 2015-06-23 13:26:46